

전북 쌀 '예담채 십리향米' 전국마트 · 슈퍼에서 팔린다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음 12월 17일) 제2708호 www.jjmaeil.com

서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중치료 전문 에인 앤웨 의위 원장 곽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준비 본격 돌입

전북도, 추진단 본격 가동… 내달부터 접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부터 순차 진행

전북도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시 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28일 최훈 행정부지사를 단장 으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시행추진 단을 가동했다.

추진단은 5개팀(시행지원팀, 대상자 관리팀, 백신수급관리팀, 접종기관관 리팀, 이상반응관리팀) 17명으로 구성

도는 코로나19 전파 확산을 방지하 고, 효과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접종해야 하는 만큼 단일부서가 아닌 전 부서의 역량 을 모아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민 관 합동으로 의사회, 간호사회, 노인 _ 회, 소방본부, 경찰청 등 13개 기관 15 인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울러,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니 필락시스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 록, 전북도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질병청-지자체 핫라인을 구 축하는 등 예방접종 시행에 만전을 기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무료 접종을 9월까지 시행해, 11월에 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맞춰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

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 중 호남권역센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시 행하다.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약 10만3,000명), 2분 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 인복지시설 종사자(약 39만4,000명), 3 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19~64세 성 인(104만3,000명) 등을 대상으로 순차 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2회 접종인 민큼 3분기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해 접 종을 진행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 자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할 계 획이다. 하지만, 접종순서는 중증진행 위험, 의료 • 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 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고, 임상 결과, 국내 유행상황 등 상황변동, 주 요 백신 도입 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조정될 것으로 보여, 수시로 변동될 예정이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돼 접종자의 선택 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백신 종류별 접종기관을 달리해

mRNA백신은 접종센터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위탁의료기관 및 방문접 종을 통해 접종하게 된다.

화이자(영하 60~90도)와 모더나(영 하 20도)처럼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백신은 냉동고 를 배치한 도내 접종센터를 통해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접종센터는 지역 체육 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총 15개소(전 주2, 시·군당 1)를 구축할 예정이다.

접종센터 선정기준은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고, 교통 편의성, 냉·난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확보, 지역 내 응급의 료기관의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선 정학 예정이다

접종센터의 의료인력은 시·도 및 시·군 의사회 및 간호사회와 MOU체 결 등 협의를 통한 민간지원의사(간호 사)을 모집·선발해 운영하는 등 다양 한 방법을 구상해 접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2~8도의 냉장 보관・유통 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예방접종 경 험이 있는 위탁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 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접종이 곤란한 경 우, 보건소당 1개팀씩 방문접종팀(의 사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2명)을 구성해 찾아가는 접종을 실시할 계획 이다. /유호상 기자



하정애 화경부 장관이 28일 완주군 수소총전소를 방문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하정애 화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인 '한국판 뉴딜 대표시업 무공해차 보급시업 현장 방문' 으로 현대지동차 전주공장과 수소충전소를 방문했다.

환경부장관, 전북형 뉴딜 핵심시설 현장행정

취임 후 처음… 현대차 전주공장 · 완주 수소충전소 방문

전북도, "전주-완주 시범도시 등 적극 지원 바란다" 요청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한국판 뉴딜

무공해차 보급사업'핵심시설인 현대 차 전주공장과 완주 수소충전소를 방 문해 수소상용차 생산시설 등을 점검 했다

환경부장관이 취임 첫 현장행정으로 전북의 뉴딜 핵심시설을 찾음에 따라, 그린뉴딜 1번지를 비전으로 하는 전북 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28일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과 완주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전기 · 수소버스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수소충전소 운영 현황 등을 살폈다.

현장행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 사, 박성일 완주군수, 현대차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한 장관은 현대차에서 전기 • 수소버 스 생산현황, 개발계획, 수출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전기 · 수소버스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후, 완주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 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한 브 리핑과 수소승용차 대한 충전 시연을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환경 부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전북도를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며 "전 북도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전주-완 주시범도시,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에 정부차 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 /유호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익산시가 전주, 군산, 김제를 아우 르는 '명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오랜 준비 끝에 올해 본격 추진하 는 이른바 '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익산의 미래가 담긴 자족형 프리미 엄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 〈관련기사 16면〉 담겨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8일 시청 상황 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의 도시 프로젝트 를 공개했다.

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만경강 수변 도시를 비롯해 금강의 용안생태습지, 신흥공원 수변 조망권 확보 등 익산

전주에서 김제까지 아우르는 '물의 도시' 시동

익산시, 만경강 일대에 자족형 프리미엄 수변도시 추진 청년 · 신혼부부 · 은퇴자들에 맞춤형 주거환경 제공 새만금 메가시티 광역적 거주 허브기능 담당 효과 기대

이 보유한 생태환경을 적극 활용하 는 친환경 사업들로 마련됐다.

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 ·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 시업인 '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은퇴자들이 자 경강 수변도시 프로젝트'는 시민들 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제 공을 위해 만경강 일대에 6,000여 세 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곳에 건설될 아파트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법적 기준비 율인 20%를 넘어 50%까지 확보해 공급하도록 권고하고 임대료도 기존 임대 시세보다 더 완화된 70~85%로 책정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경제자립형 은퇴자 마을은 수익형 스마트팜과 태양광 등 입주자 참여 형 수익모델을 도입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료시설 유치, 지역대학의 프생교육과 체육·보건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후 걱정 없는 삶을 보낼 수 있 도록 조성된다.

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인위적인 건 설이 아닌 기존 수변을 활용해 친환 경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시민 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수변공간 을 제공하는 동시에 익산 새만금 메 가시티의 광역적 거주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만경강 일대는 전주 와 군산, 김제에 새만금을 아우르는 지리적 특성과 친환경적 요소를 보 유하고 있어 미래 익산 주거 기능의 허파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갈증의 도시라는 이미 지를 떨쳐내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 거환경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생기 넘치는 도시에 희망이 펼쳐질 수 있도록 꼼꼼하면 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